



56

수리 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

성별	남	나이	44세	직종	수리 작업자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--	-------	----

1 개요

박○○(남, 44)은 2002년 6월 26일 S건설에 입사하여 수리 작업을 하던 중 2003년 9월 J대학교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받았다.

2 작업환경

박○○은 입사 후 동료 5명과 함께 주로 2인 1조로 천장 수리/보수/교체, 환풍기 교체/정비, 도어록 교체, 화장실 변기 수리/보수/교체 등의 작업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였다. 천장 작업은 마이톤텍스(12×300×600mm) 및 백석면이 3~5% 함유되어 있는 아미텍스(12×300×600mm) 등을 교체하는 작업인데, 박○○은 밑에서 텍스를 들어주는 등 보조작업만 하였다. 대부분의 텍스 교체작업은 드릴작업을 통해 규격품을 교체하는 것이었으나, 구석 부위 등은 텍스를 절단하여 교체하기도 하였다. 작업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 2월부터 8월까지 최근 7개월 간 총 218매의(마이톤텍스 178매, 아미텍스 40매) 텍스를 교체하였다. 박○○ 본인에 의하면 월 평균 2~3회 정도 텍스 교체작업을 하였는데 작업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, 보조작업을 하더라도 뒷정리 등을 하면서 텍스에서 나온 먼지를 흡입하였다 한다. S건설에 입사하기 전에는 비파괴검사(약 2년 간) 및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, 7년 3개월 간은 크레인 및 오페수 배출시설의 전기판넬 보수작업을 하였다.



3 의학적 소견

박○○은 흡연하지 않았고, 과거 폐결핵으로 9개월 간 치료하였다. 2003년 6~7월경 피가 묻은 객담 및 호흡곤란 증상으로 흉부 컴퓨터단층사진을 촬영한 결과 간질성 폐 질환이 의심된다고 하여, J대학교병원에서 2003년 9월 16일 흉강경을 통한 우측 폐의 조직검사를 통해 특발성 폐섬유증 중 UIP(Usual Interstitial Pneumonia)로 진단받았다.

4 결 론

박○○은

- ① 특발성 폐섬유증 중 UIP로 확진되었는데,
 - ② 진단받기 약 1년 전부터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지만,
 - ③ 진단 전 노출기간이 짧고 노출수준이 낮으며,
 - ④ 진단받기 4년 전에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사진에서도 양측 폐야의 섬유화 소견이 있었으므로,
-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.